셀리의 법칙, 도쿠로, where is my water

셀리의 법칙의 게임 방식

딸과 아버지의 시점을 오가며 퍼즐을 풀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

딸의 시점으로 플레이 이후 아버지 시점으로 플레이 하면서 딸의 시점으로 플레이 했던 행동들을 기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마치 아끼는 딸이 다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쓰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비슷

셀리의 법칙이란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의 말로

하는 일 마다 잘되는 긍정의 표현이다.

딸은 무뚝뚝한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이 도시로 상경해 곤경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딸이 어렸을적 이야기를 하며 게임이 진행되는데

게임 진행이 딸과 아버지의 시점을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하며 게임이 진행된다.

어렵지 않는 게임 난이도 덕에 유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텍스트를 읽는다.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게 되고

하나의 스테이지는 두개의 구성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딸의 시점으로 스테이지를 터치로 하는 점프를 통해 진행하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시점으로 좌우 조작만 가능하고 점프는 할 수 없지만 이전에 플레이했던 딸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진행을 통해 하나의 스테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전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평소 즐기던 게임에서 삶의 교훈을 주는

늘 옆에서 잘되라고 도와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도쿠로

백마 탄 왕자가 납치된 공주를 구하는 뻔한 시퀀스를 벗어나 공주를 납치한 마왕의 병사가 공주에게 사랑을 느껴 구조해주는 스토리를 따라 가고 있다.

이게임은 게임 시작 초기를 제외하면 스토리를 설명하는 대사가 매우 적다.

대신에 캐릭터 하나 하나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

공주는 마왕의 병사를 볼수가 없다. 대신에 마법의 물약으로 잠깐 동안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그것 마저도 병사는 공주를 도와주는 데 사용한다. 변신이 풀리면 어김없이 공주는 병사를 보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앞으로만 간다. 어쩔 수 없이 무시당하지만 첫눈에 빠진 사랑에 병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주에게 준다.

심지어 마왕에 향한 충성심도 사랑 앞에서는 쉽게 버려지고 동료들이 병사를 배신자라고 하며 공격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맞선다.

사랑이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경험해 볼 수 있다.

Where is my water

세 마리의 악어가 나온다.